

정책서

2022년 2월 외로움에 관한 세번째 연례 보고서

Policy Paper

Tackling Loneliness Annual Report February 2022: The Third Year

(February 15, 2022)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UK)

목차(Contents)

장관의 서문(Ministerial foreword)

낙인 줄이기(Reducing stigma)

지속적인 변화 추진(Driving a lasting shift)

증거 기반의 확장(Expanding the evidence base)

부록 A: 2018년 외로움 문제에 관한 전략 업데이트(Annex A: Update on 2018 Tackling Loneliness Strategy commitments)

부록 B: 외로움 문제에 관한 네트워크 실행 계획 업데이트(Annex B: Update on Tackling Loneliness Network Action Plan commitments)

부록 A: 2018년 외로움 문제에 관한 전략 업데이트

(Annex A: Update on 2018 Tackling Loneliness Strategy commitments)

이 보고서에서는 외로움 문제에 관한 전략이 주제별로 분류되고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18년 외로움 문제에 관한 전략 보고서(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36725/6.4882_DCMS_Loneliness_Strategy_web_Update_V2.pdf),’ ‘2020년의 연례 보고서(<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neliness-annual-report-the-first-year/loneliness-annual-report-january-2020--2#annex-loneliness-strategy-commitments>),’ ‘2021년의 연례 보고서(<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neliness-annual-report-the-second-year/loneliness-annual-report-january-2021#annex-b---update-on-loneliness-strategy-commitme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료되었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략에 대한 업데이트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식 제고 및 낙인 감소(Raising awareness and reducing stigma)

정부는 아래와 같이 일하겠습니다:

- 정부의 정신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와 정보를 통해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장려하는 방법 및 사회적 웰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겠습니다.

2021년의 외로움 인식 주간(Loneliness Awareness Week) 동안 ‘외로움을 얘기합시다(#LetsTalkLoneliness)’ 캠페인은 ‘브리티시 텔레커뮤니케이션(BT),’ ‘영국 우정 공사(Royal Mail),’ ‘ASDA(영국 슈퍼마켓 체인),’ ‘틱톡(TikTok)’ 등과의 협력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2021년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는 외로움과 정신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나은 건강: 모든 마음은 중요하다(Better Health: Every Mind Matters)’ 캠페인과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DCMS는 외로움과 관련된 낙인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기반으로 ‘더 나은 건강: 모든 마음은 중요하다’ 캠페인을 통해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1월에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캠페인 단계를 시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증거 기반 구축(Building the evidence base)

정부는 아래와 같이 일하겠습니다:

- 외로움을 측정하는 표준으로서 국가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PS)이 추천한 측정 패키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 연결성 구축 기금(Building Connections Fund)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증거 구축 및 공유에 기여할 방법을 지속해서 탐구하겠습니다.
- 공공보건 결과 프레임워크(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에 관한 개정 협의에 ONS가 승인한 외로움 척도를 포함하겠습니다.

영국 정부는 ‘외로움 문제에 관한 증거 그룹(Loneliness Evidence Group)’을 신설하는 등 ‘2018년의 외로움 문제에 관한 전략(2018 Loneliness Strategy)’ 이래로 외로움과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전문가 및 학자와 함께 일하면서 외로움에 대해 여전히 알아야 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외로움 문제에 관한 증거 리뷰(Tackling Loneliness Evidence Review)’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ackling-loneliness-evidence-review>).

외로움 척도를 이용한 데이터는 현재 ‘활동적 삶 조사(Active Lives Survey),’ ‘아동과 젊은이의 활동적 삶 조사(Active Lives Children and Young People Survey),’ ‘가족에 대한 태도 조사(Tri-Service Families Continuous Attitudes Survey),’ ‘공동체 생활 조사(Community Life Survey),’ ‘사람과 자연에 대한 조사(People and Nature Survey)’에 게재되었습니다. 데이터는 또한 ‘전국 여행 조사(National Travel Survey),’ ‘의견 및 라이프 스타일 조사(Opinions and Lifestyle Survey),’ ‘잉글랜드 주택 조사(English Housing Survey),’ ‘사회적 이해(Understanding Society),’ ‘학생 코로나 19 정보 조사(Student COVID-19 Insights Survey),’ ‘잉글랜드 아동 및 젊은이의 정신 건강(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England),’ ‘참여(Taking Part),’ ‘어린이와 젊은이의 참여(Taking Part Children and Young People)’에서 수집되었습니다.

ONS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다양한 인구 통계 그룹의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wellbeing/articles/mappinglonelinessduringthecoronaviruspandemic/2021-04-07>). ONS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일부 지역에서 ‘외로움에 대한 지도(map of loneliness)’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ONS의 외로움 척도(ONS loneliness measure)는 공공보건 결과 프레임워크(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에서 지표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지역 집단이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 느끼는 외로움이 전국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지의 여부를 보여줌으로써 지방 당국이 만성적인 외로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DCMS는 협력자들과 기금 수령자들에게 ONS의 외로움 척도를 사용하여 그들의 프로그램이 외로움과 고립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습니다. 그

예로는 ‘코로나 19 팬데믹 외로움 기금(COVID-19 Loneliness Fund)’ 평가와 ‘연결성 구축 기금(Building Connections Fund)’ 평가가 있는데, 기금 수령자는 프로그램 평가에서 ONS 외로움 척도를 사용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연결성 구축 기금’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2021년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ilding-connections-fund-evaluation-final-reports>). 최종 보고서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과 그 도중에 알려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작업(Working across government)

- 시민사회부 장관(The Minister for Civil Society)은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간 작업을 계속해서 이끌 것입니다.
- 관련된 모든 부처의 장관들은 하나의 그룹으로서 계속해서 공식적인 모임을 갖으며 외로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작업을 추진하고, 이 전략의 계획이 이행되는 것을 감독할 것입니다.
- 정부는 외로움이라는 의제에 대한 연례 경과 보고서를 발간할 것입니다.
- 정부는 광범위한 정책 수립에서 사회적 관계가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선택지를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나이젤 허들스톤(Nigel Huddleston)은 ‘스포츠, 관광, 유산, 시민사회단체 부의 장관(Minister for Sport, Tourism, Heritage and Civil Society)’으로서 외로움에 관한 의제를 담당합니다.

영국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CMS)는 정부의 각 부처와 협력하여 ‘외로움 해소 전략(Tackling Loneliness Strategy)’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 입안과 전략 계획에 외로움 문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도록 다른 부서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DCMS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장관들의 그룹 미팅을 일시 중지시켰지만, 외로움의 문제에 대해 다른 정부 부처들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처방의 증가(Growing social prescribing)

정부는 다음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 전국의 모든 지역 보건 및 돌봄 시스템이 ‘사회적 처방 커넥터(social prescribing connector)’ 체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잉글랜드 전역의 모든 사회적 처방 커넥터 체계를 지도화하여, 지역의 사회적 처방 체계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 다양한 단체와 서비스 기관이 개인을 사회적 처방 체계에 위탁하는 현재의 방식을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 사회적 처방과 관련하여 확장 계획의 일부로서 예술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잉글랜드 국가의료서비스(NHS England)와 국가의료서비스 개선(NHS Improvement, NHS/I)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모집된 이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처방 링크 활동가(social prescribing link workers)들을 모집, 교육 및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까지 1차 진료 네트워크(Primary Care Networks, PCNs) 내의 사회적 처방 링크 활동가 1,000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는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사회적 처방 링크 활동가의 수는 1,582명입니다.

국가의료서비스 개선(NHSE/I)은 지역적 일상 정보 수집 등 영국 전역의 사회적 처방 체계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지역 파트너 등과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NHSE/I는 단체와 서비스 기관이 현재 개인들을 사회적 처방 체계에 위탁하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경로 등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처방의 상호 작용 중에 수집된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발이 포함됩니다.

NHSE/I는 ‘통합 돌봄 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s, ICSs),’ ‘1차 진료 네트워크(PCNs)’ 및 그 협력자들이 사회적 처방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처방 지역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1차 진료 네트워크 자문가들은 1차 진료 네트워크가 사회적 처방 및 기타 맞춤형 돌봄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22년에 모였으며, 모범 사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22년 ‘국가 사회적 처방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for Social Prescribing, NASP)’는 잉글랜드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에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지역 자원봉사 기관, 신앙 및 사회적 기업 그룹을 위해 "번영하는 지역사회(Thriving Communities, <https://socialprescribingacademy.org.uk/thriving-communities>)"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공동체 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회원 수 6,000 이상의 ‘번영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Thriving Communities Network)’ 설립, ‘잉글랜드 예술 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와 협력하여 180만 영국 파운드의 ‘번영하는 지역사회 기금(Thriving Communities Fund)’ 조성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ACE는 향후 3년간 ACE의 10년 전략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설명하는 ‘2021–2024년 이행 계획(Delivery Plan for 2021-2024)’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사람들을 연결하고,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2022년에 ACE는 ‘국가 사회적 처방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for Social Prescribing)’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ACE가 보건 및 돌봄 제공자와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고 지역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고 코로나 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문화 분야에 어떻게 지원 및 투자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 사회적 처방에 관한 모범 사례 지침을 발표하겠습니다
- 위원과 실무자를 위한 온라인 사회적 처방 플랫폼을 시작하겠습니다
- 사회적 처방 링크 활동가를 위한 새로운 공인 학습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 지역의 사회적 처방 운영 단체를 설립하겠습니다

지역의 사회적 처방 제도는 조력자와 조정자의 국가적 네트워크에 의해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NHSE/I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한 일련의 '지역 스포트라이트(regional spotlight)' 행사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등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사회적 처방 개발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NHSE/I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재 4,750명의 회원이 사회적 처방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모범 사례 공유를 위한 토론과 동료 지원이 활발합니다. NHSE/I의 사회적 처방 링크 활동가를 위한 격주 웨비나 시리즈는 2021년에도 지속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웨비나가 포함됩니다.

NHSE/I는 사회적 처방 요약 가이드(<https://www.england.nhs.uk/publication/social-prescribing-and-community-based-support-summary-guide/>), 사회적 처방 링크 활동가를 위한 환영

패키지(<https://www.england.nhs.uk/publication/social-prescribing-link-worker-welcome-pack/>), 1차

진료 네트워크 참조서(<https://www.england.nhs.uk/publication/social-prescribing-link-worker->

welcome-pack/) 등을 새로 고치는 등 사회적 처방을 위한 모범 사례 지침 또한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NHSE/I의 원격 학습 프로그램은 현재 정신 건강과 웰빙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9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과 젊은이를 위한 사회적 처방에 관한 모듈은 2022년 4월까지 완성될 예정입니다. 덧붙여 NHSE/I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성숙하고 번영하는 사회적 처방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 돌봄 시스템의 사회적 처방 성숙도 프레임워크(ICSS social prescribing maturity framework)’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통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기

(Helping people to connect through transport initiatives)

정부는 다음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교통과 외로움(Transport and Loneliness)에 관한 580만 영국 파운드의 ‘공유 결과 기금(Shared Outcomes Fun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는 지역 당국 및 자선단체와 협력하여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교통을 이용한 개입 시험 제안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DfT와 함께 일하는 학자들에 의해 평가될 것이고, 그 결과는 공유될 것입니다.

‘교통 기금을 통한 외로움 문제 해소(Tackling Loneliness with Transport Fund)’는 교통이 외로운 사람들을 도울 방법에 대한 증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DfT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 잉글랜드의 7개 이동성 센터(mobility centres)와 협력하여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의 징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 지역사회 교통 운전자 자격을 위한 기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미래의 이동성에 대한 대도전(the Future of Mobility Grand Challenge)’에 접근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포용적인 교통의 필요성을 두어 미래 교통 체계가 외로움과 사회적 소외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성 센터와의 시험은 2019년 DfT가 시작했는데, 이는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대체 이동수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약간 지연된 상태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DfT는 잉글랜드에 있는 13개 이동성 센터의 완전한 구현 가능성에 대해 평가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교통 사업자가 사람들과 그들의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상점, 직장, 학교까지 이동 수단을 제공해 주는 등 고립을 줄이는데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니버스 운전자에 대한 인식 제도(Minibus Driver’s Awareness Scheme, MiDAS)는 지역사회 교통 협회(Community Transport Association, CTA)가 주로 관리하며, 미니버스에 대한 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그 안전한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DfT는 MiDAS를 개선하기 위해 38,000 영국 파운드의 초기 자금을 지원하였고, 이는 미래 승객의 필요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11월 시골 지역의 이동성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와 관련된 DfT의 평가 및 산업, 정부, 시골의 지역사회가 기회 활용을 위해 협력할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시골 지역에 대한 교통수단 선택권의 부족, 사회적 고립, 교통 접근성 강화, 적극적인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답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에 대한 분석이 2021년 9월에 출판되었으며(<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future-of-transport-rural-strategy-call-for-evidence/future-of-transport-rural-strategy-call-for-evidence>), 곧 ‘교통의 미래: 시골 지역에 대한 전략(Future of Transport: Rural Strategy)’이 출판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역에서 연결되도록 돕기(Helping people to connect in their local area)

정부는 아래와 같이 일하겠습니다:

- 사람들이 지역 활동, 서비스 및 지원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사용 방법을 알도록 하기 위한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 지방 정부 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와 협력하여 지역 당국 간의 학습 및 모범 사례 공유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LGA와 DCMS가 오픈 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한 작업은 현재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더 진행되었으며, 이를 ‘오픈 레퍼런스 UK 스탠더드(Open Referral UK Standard)’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현재 데이터 스탠더드 기관(Data Standards Authority)에서 검토 중입니다. 상기 스탠더드는 지역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현재 10개의 단체가 지역사회 디렉토리(community directories)에서 오픈 레퍼런스 UK 스탠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스탠더드의 채택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웹사이트(<https://openreferraluk.org/>)와 포럼이 만들어졌으며, 신규 채택자를 위한 사례 연구 및 단계별 지침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LGA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그 개선 작업에서 외로움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LGA는 외로움 문제 해결에 있어 조기 개입의 이점과 공원과 도서관과 같은 서비스의 광범위한 역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LGA는 또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주도 접근법과 개입에 대한 유용 사례를 계속해서 찾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LGA는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 그 협력자가 진행한 혁신적인 작업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례 연구를 출판했습니다(<https://www.local.gov.uk/loneliness-case-studies>). LGA는 또한 의원들을 위한 외로움 지침을 업데이트했으며,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연결되도록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Creating more opportunities for people to connect)

정부는 아래와 같이 일하겠습니다:

- 삶의 상황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하고도 포용적인 자원봉사의 기회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고 개발하겠습니다.

DCMS는 연령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DCMS 50+ 자원봉사 프로그램(DCMS 50+ Volunteering Programme)’에 대한 자체 평가를 12월에 발표했습니다(<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valuation-of-the-50-volunteering-programme>). 평가 결과 이 프로그램은 25,320명 이상의 신규 자원봉사자를 동원했으며 474,730명 이상의 신규 수혜자를 지원했습니다. 상기 프로그램이 단체 내의 문화적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참여에 대한 새로운 작업 방식과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상기 평가는 고립된 곳에서는 사람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월 DCMS는 ‘잉글랜드 예술 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피어스 재단(Pears

Foundation), '국민건강보험의 함께하는 자선단체(NHS Charities Together)'와 함께 예술과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자원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7백만 영국 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자원봉사 미래 기금(Volunteering Futures Fund)'은 젊은이, 장애인, 소수 민족 출신은 물론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increases-accessibility-to-volunteering>).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는 55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스포츠와 신체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스포츠 잉글랜드'와 영국 적십자사(British Red Cross, BRC)가 18개월간 협력한 결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876명의 사람들이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이 프로젝트로부터의 경험은 BRC의 다른 서비스에서 채택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체 평가 및 영향 보고서는 2022년 11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영국 돌봄 제공자(Carers UK)' 그룹은 '스포츠 잉글랜드'와 협력하여 평가 시험을 마치고 '돌봄 제공자와 신체 활동에 대한 보고서(The Carers and Physical Activity Report)'를 발간했습니다(<https://www.carersuk.org/for-professionals/policy/policy-library/carers-and-physical-activity-a-study-of-the-barriers-motivations-and-experiences-of-unpaid-carers-aged-55-and-over-in-england>). 평가 시험의 결과에 따라 돌봄 제공자가 지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외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돌봄 제공자를 위한 허브(the Carers Active Hub)'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최초의 '돌봄 제공자의 4월(Carers Active April)'이 개최될 것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지역사회 공간의 잠재력 확보하기

(Unlocking the potential of underutilised community spaces)

정부는 아래와 같이 일하겠습니다:

- 지역 주민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도가 낮은 지역사회 공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학교 부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겠습니다
- 다른 학교를 지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학교 부지 사용을 이미 허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겠습니다.
- ‘지역사회 철도 개발 전략(Community Rail Development Strategy)’을 통해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철도 관련 자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 유용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그룹에 공간을 개방하도록 직업 센터(Jobcentres)를 지원하겠습니다

DCMS의 ‘연결되는 공간 기금(Space to Connect Fund)’은 ‘협동조합 재단(the Co-Op Foundation)’과 함께 2019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운영한 160만 영국 파운드의 기금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발간된 상기 기금의 첫해 평가 결과 공동체 공간은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교류하고, 사회적 연계를 형성하며, 공동체 자산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가지게 하는 중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https://www.leedsbeckett.ac.uk/research/centre-for-health-promotion/space-to-connect/>). 이들 공간은 또한 사람들이 운동, 학습, 사회적 활동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정부는 저녁, 주말, 휴일에는 지역 사회가 주최하는 회의와 행사 등을 위해 학교 시설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사용의 극대화에 대한 지침 작업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되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시설 사용을 이미 허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2019/20년 데이터는 계획대로 수집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발표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 철도(community rail)는 지역 철도 프로젝트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기 위한 풀뿌리 운동입니다. 지역사회 철도 개발 전략(Community Rail Development Strategy)은 지역사회 그룹이 사용되지 않거나 많이 사용하지 않는 철도 자산을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지역사회 단체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는 철도역의 정원 유지를 돕는 사람들부터 주요 정비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철도 협력자들과 관련된 기타 그룹은 지역 철도 시설(철도 역 정원이나 카페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연결되도록 돕기 위해 자원봉사 단체, 자선 단체 및 푸드뱅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직업센터는 고객을 돕고 대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개방해 왔지만, 고객 간의 사회적 연결에 도움이 되는 지역 공동체 그룹의 활동을 위한 공간 사용은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지 상황에 따라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의 고객을 지원하는 협력 단체가 가능한 경우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단체와 일선 직원 지원하기

(Supporting more organisations and frontline staff to tackle loneliness)

정부는 아래와 같이 일하겠습니다:

- ‘외로움 끝내기 캠페인(Campaign to End Loneliness)’ 및 비즈니스 단체와 협력하여 더 큰

범위에서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이 하는 작업을 담아내고, 공유하며, 권장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 사회복지사 간 외로움 문제 해결에 대한 지식의 공유를 개선하겠습니다.
- 외로움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한 조언을 통합하여 ‘한 번 말해주세요(Tell Us Once)’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은 사회적 접촉을 위한 필수적인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DCMS는 ‘외로움 끝내기 캠페인’에 의뢰하여 고용인과 외로움에 관한 우수 사례 가이드를 제작했으며, 이것은 2021년 5월에 출판되었습니다.

2014년 ‘전인적 돌봄 법(the Holistic Care Act)’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들은 돌봄 및 지원 계획이 사람들의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타인과의 연결을 개선하는 데 쓰이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for Health and Social Care, DHSC)는 또한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안전 브리핑(safeguarding briefing)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외로움의 위험에 처한 사람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양질의 일관적인 접근법으로의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출판될 예정입니다.

‘한 번 말해주세요’ 이니셔티브는 사람들이 출생 또는 사망을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DWP는 가족의 사망을 정부에 신고하기 위해 ‘한 번 말해주세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발행되는 서한을 수정했는데, 이는 외로움 문제를 위한 지원처 등을 새로이 담고 있습니다. 또한 DWP는 2020년에 ‘한 번 말해주세요’ 출생 신고 서한을 수정했는데, 여기에는 외로움을 겪고 있을 수 있는 새로이 부모가 된 이들에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출생 신고 서비스가 바뀌어 현재는 주로 세입관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 시 새롭게 부모가 된 이들에게 외로움 문제에 관한 지원처를 안내하기 위해 HMRC와 DWP는 올해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HMRC는 직원들에게 외로움에 대한 정보와 외로움을 느끼는 고객을 지원 서비스로 안내하는 방법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DWP는 또한 직업센터 내에 군대 관련 챔피언 그룹(Armed Forces Champions)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역할 일부는 군대 공동체 내의 외로움 문제를 해소할 인식 제고와 지역적 선별 지원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시골 지역에서의 외로움 문제 해결하기(Tackling loneliness in rural areas)

정부는 아래와 같이 일하겠습니다:

- 시골 지역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정부 부처의 업무에 대해 조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골 지역 이해관계자 그룹을 소집하고, 이니셔티브와 우수 사례에 관한 지역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시골 지역사회 위원회(Rural Community Councils)’의 ‘잉글랜드 시골 지역사회 행동 (Action with Communities in Rural England, ACRE)’ 네트워크는 환경식품농림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의 자금 지원을 통해 시골 지역의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파트너와의 작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ACRE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등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 과제를 자원봉사 그룹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이들 단체와 협력했습니다. ACRE는 또한 마을 회관 관계자가 기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가 풀렸을 때 마을 회관을 다시 열 수 있도록 돕는 등 10,000개 이상의 잉글랜드 마을 회관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ACER는 또한 사람들이 ‘좋은 이웃과 마을 대리인 제도(good neighbour and village agent schemes)’를 통해 연결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장 외지고 고립된 지역에 들어가는 이동식 팝업 카페(mobile pop-up cafes)와 같은 지원 서비스와 지역사회 교통 계획 등이 그 사례입니다. Defra는 2022년 시골 지역에서의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양질의 계획과 주거를 통한 지역사회의 화합 지원하기

(Supporting communities to come together through good planning and housing)

정부는 다음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주거(community-led housing) 및 공동거주(cohousing)라는 해법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정원 공동체(garden communities)에 대한 평가와 지원에 디자인 품질과 공동체 화합의 척도로서 외로움이 포함되도록 장려하겠습니다

지위향상, 지역사회, 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 DLUHC)는 런던 경제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에 모든 연령대에 걸쳐 외로움을 줄이는 데 지역사회 주도형 주택(특히, 공동 주거)이 효과적인가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관련 보고서는 2021년 11월에 출판되었는데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munity-led-housing-and-loneliness>), 그 주요 연구 결과는 참여자들의 외로움을 줄이는데 지역사회 주도형 주택이 효과적이라는 논지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DLUHC와 잉글랜드 주택(Homes England)은 ‘정원 공동체(Garden Communities)’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정착촌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DLUHC는 7월 국가 모델 디자인 코드(the National Model Design Cod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model-design-code>)를 발간했고, 국가 계획 정책 프레임워크(the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planning-policy-framework--2>)를 업데이트했으며, 이는 모든 지역 당국이 지역민들과 함께 주택과 주위 환경에 관한 양질의 디자인 스탠더드를 반영하는 지역 디자인 지침을 제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국 지역 당국자와 함께 국가 모델 디자인 코드 적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계획 개혁의 추진 방향에 대한 결정에 따라 그것이 반영되도록 국가 계획 정책 프레임워크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디지털 연결에 대해 지원하기(Helping people to connect digitally)

정부는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디지털 환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CMS는 온라인상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에 새롭게 요구되는 것을 담은 ‘온라인의 유해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백서(Full Government Response to the Online Harms White Paper)’를 발간했습니다(<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online-harms-white-paper/public-feedback/online-harms-white-paper-initial-consultation-response>). 2021년 5월에는 입법 전 조사를 위해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의 초고를 발표했습니다(<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raft-online-safety-bill>). 상기 법안은 영국 상원과 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로부터 입법 전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공동 위원회는 2021년 12월 권고안을 보고하였습니다. DCMS와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이 권고안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상기 법안을 도입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DCMS는 또한 2021년 7월에 출판된 ‘온라인 미디어 리터러시 전략(the Online Media Literacy Strateg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nline-media-literacy-strategy>)’을 통해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기 전략은 장애가 있는 사용자나 과도한 학대를 온라인에서 경험한 사람 등 온라인상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기 전략과 함께 우리는 도서관 직원과 청소년을 위한 활동가가 그들의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안전하도록 지원할 기술을 배우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미디어 리터러시 행동 계획(Online Media Literacy Action Plan)’의 첫 번째 연례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젊은이의 외로움 문제 해결하기(Tackling loneliness amongst young people)

정부는 아래와 같이 일하겠습니다:

- ‘사회적 관계의 가치(the value of social relationships)’를 강조하는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관계에 대한 교육(relationships education)’과 중등학교 수준에서의 ‘관계와 성에 대한 교육(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에 선생님을 위한 외로움 지침을 포함하겠습니다

- 고등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주가 특수 교육이나 장애를 가진 젊은이에게 직업 연수와 견습직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국가도제청(the 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과 협력하겠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모든 학교가 ‘관계와 성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완전히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과 고등 교육에 관련된 이들은 수업 초에 특히 외로움의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이것은 더 큰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감, 쇠약한 정신 건강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는 고등 교육(Higher Education, HE) 과정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도구와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HE 부문 및 기타 정부 부서와 협력했습니다.

DfE는 학생 사무국(Office for Students, OfS)과 협력하여, 코로나 19 팬데믹에 의한 학생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정신 건강 및 웰빙 플랫폼인 ‘학생의 공간(Student Space)’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플랫폼은 일대일 전화, 문자, 웹 채팅, 정신 건강과 웰빙에 관한 주요 자료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제공합니다. 이 공간에는 우정과 사회생활에 초점을 맞춘 자료를 위한 섹션이 있습니다.

특수 교육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젊은이에게 직업 연수와 수습 직을 제공하는 것은 장벽을 없애고 가능한 기회에 대한 인식을 높여 이들이 사회로부터 덜 고립되고, 덜 소외되었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DfE는 더 많은 젊은이가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일자리 계획(Plan for Jobs)의 일환으로 사상 최대의 훈련 기간 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22 학년에 43,000명의 훈련생을 더 지원하기 위해 1억 2,600만 영국 파운드의 2021/2022 예산이 추가로 승인됐습니다. DfE는 훈련생 직업 연수 기회의 제공에 대한 1,000 영국 파운드의 인센티브 지급을 2022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DfE는 학습 장애나 발달 장애를 가진 수습생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장벽을 이해하고, 모범 사례와 효과적인 방법을 모으기 위해 ‘수습생에 대한 다양성 챔피언 네트워크(Apprenticeship Diversity Champions Network)’의 고용주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2022년 2월 ‘전국 수습 직 주간(National Apprenticeship Week)’ 기간에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아래와 같이 일하겠습니다:

- 외로움의 위험에 처한 정부 보육 혜택을 받은 이들(케어 리버, care leavers)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겠습니다.

정부 간 장관 위원회(the cross-governmental Ministerial Board)는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케어 리버(care leavers)의 교육, 고용, 훈련에의 참여 확대, 특히 정신 건강 지원에의 접근을 포함한 케어 리버에 필요한 건강 지원 등 다양한 이슈를 고려했습니다.

DfE의 ‘기술 도움을 받으세요(Get Help With Tech, GHWT)’ 프로그램은 2021년 5월 5,200대의 휴대용 컴퓨터(laptops)와 데이터 패키지를 케어 리버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케어 리버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케어 리버와 사회복지사가 지원하는 어린이에게 휴대용 컴퓨터 10,000대가 더 지원되었습니다. 정부는 또한 3개의 케어 리버 자선단체인 ‘비컴(Become),’ ‘드라이브 포워드(Drive Forward),’ ‘케어 리버 협회(Care Leavers Association)’에 15만 영국 파운드를 지원하여, 이들 자선단체가 외로움과 고립의 위험에 처한 젊은이 지원에 초점을 두고 그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 10세에서 20세에 속한 이들이 의미 있는 사회 활동(meaningful social action)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iwill)’ 캠페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돕기 위해 나섭시다(Step Up To Serve)’가 운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iwill)’ 캠페인은 2020년 12월에 종료되었으나, 현재에는 자선단체인 ‘자원봉사는 중요합니다(Volunteering Matters)’와 ‘영국 젊은이(UK Youth)’가 후원하는 새로운 ‘#그렇게 하겠습니다(#iwill)’

파트너십으로 넘겨졌습니다. ‘국가 젊은이 사회 행동 조사(National Youth Social Action Survey)’는 응답자의 거주지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는데 코로나 봉쇄로 가능하지 않아 작년에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대신 ‘젊은이 사회 행동 신속 증거 평가(Youth Social Action Rapid Evidence Assessment)’가 수행되었습니다(<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youth-social-action-rapid-evidence-assessment>). 이 평가에서는 젊은이의 소속감을 높이는 데 사회적 행동의 영향이 강조되었습니다.

* 이번 국문 번역 요약본은 원문의 ‘부록 A: 2018년 외로움 문제에 관한 전략 업데이트’를 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neliness-annual-report-the-third-year/tackling-loneliness-annual-report-february-2022-the-third-year>).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elee@asemgac.org)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